



책 속의 밑줄 긋기 “나의 훌륭한 가르쳐주는 금강경의 힘은 무한하다. 금강경 앞에서는 악착같이 사는 사람도, 인생포기한 사람도, 그저 그냥 사는 사람도 그 모두가 행복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마음속에 살며시 품고 되새김질하면서 조금씩 내 영혼 속에 스며들게 하면 그 맛은 세상을 얻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님을 저절로 알게 된다. 적게 갖거나 없으면 불행한 감각을 갖고 살아만 하는 이 유쾌한 시대에 나 자신을 금강경에 풍덩 던져 넣어 세탁해버리자”

〈금강경의 재발견 중에서〉

“수행해라” “예, 수행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수행으로 보답하는 길뿐이라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 삼배를 하고 일어선 잠시 방향을 잃고 출입문을 못 찾았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모든 것을 벗어나 자유를 얻은 듯했다. 가사도 상가도 벗어나 떠나야 했다. 사야도 꾸미를 나와 저녁노을이 곱게 물들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홀로 떠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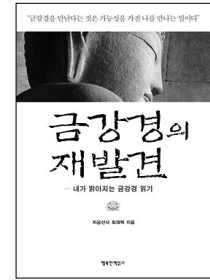
〈스승은 붓다이다 중에서〉

Books

〈금강경〉 핵심 키워드 32개로 세분화시켜 이해 쉽게 구성

금강경의 재발견

행복한 책 읽기 퍼블리싱
지공선사 최재혁 지음 | 2만 5천원



금강경 강독이나 금강경 해설 등, 금강경에 대한 책은 많다. 그런데 〈금강경의 재발견〉이 특별한 이유는 읽기 쉬운 구성과, 재미난 예화, 그리고 한 눈에 쏙 들어오는 탁월한 해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깊이 있는 깨달음 때문이다. 〈금강경의 재발견〉은 불자(佛者)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읽어보아야 할, 아니 평생 동안 옆에 끼고 읽고 또 읽어야 할 금강경을 누구나 편하게 읽기 쉽게 구성했다. 이 책의 구성은 금강경 설법의 현장감을 살리면서 부처님의 육성을 자연스럽게 그대로 따라가도록 돼있다.

금강경을 모두 32장으로 나누어, 매 장의 시작마다 전체를 요약한 핵심 키워드 가 한 문단씩 제공된다. 그리고 뒤이어, 금강경의 한문 원문과 한글 음독, 이어서 깊이 있고 풍성한 내용의 금강경 해석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는데, 본격적인 금강경 해설에 앞서서 저자의 생생한 경험서 우려난, 깨달음이 있는 예화나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한 편씩 소개된 것도 특징이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법하실 때, 또는 명승대덕(名僧大德)들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깨달음을 에피소드나, 선문답들은 종종 일어난다. 총 32편에 이르는 생생한 예화들은 재미나기도 하지만, 어쩌면 선문답 같은 이 에피소드들을 통해 생활 속에서 금강경을 만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금강경을 저 멀리 불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새로운 것은 한눈에 쏙 들어오는 저자의 탁월한 해설 때문이다. 저자는 김세환 법선사의 수제자로서, 그리고 오랜 동안 화광선원 서 법선사로서 각종 오래와 상담 등을 도맡아 왔다. 이런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석가모니,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등 위대한

성현들의 가르침과, 불경과 사서삼경 그리고 빅데이터와 카오스이론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종합무진 누비며 모든 것을 불법(佛法) 속에 녹여냈다. 바로 그것을 금강경이란 그릇에 담아 독자들에게 내보여준다. 불법(佛法)과 동서고금의 가르침, 현대의 최첨단 물리학 이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금강경이란 용광로에 녹여낸 저자의 해설은 방대한 분량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 그래서 560쪽이 넘는 책이지만, 쉽게 금방 읽힌다.

기독교서신구약성경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전인 것처럼, 금강경은 불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전이다. 그래서 불자라면 누구나 금강경 한 권쯤은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누구나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정작 가장 잘 알지 못하는 경전이 금강경인지도 모른다. 금강경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부처님을 제대로 아는 일이다. 또, 금강경만 제대로 읽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참

읽기 쉬운 구성, 재미난 예화,

한눈에 쏙 들어오는 탁월한 해설

나’를 만나게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래서 저자는 “금강경을 만나는 것은 가능성을 가진 나를 만나는 일이다”라고 한다. 〈금강경의 재발견〉의 부제가 ‘내가 밝아지는 금강경 읽기’인 것도 그런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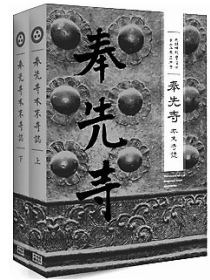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2일이면 〈금강경의 재발견〉을 모두 읽을 수 있다. 이 책에는 불자가 공부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佛法)에 풍성한 읽을거리들이 들어 있다. 이 책을 읽고 난 이후의 금강경은 이전의 금강경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의 ‘재발견’이다.

이 책은 펼치기 부담스러운 금강경을 친근하게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실마리를 갖도록 해 준다. 단순하고 추상적인 문자풀이와 어렵고 관념적인 표현을 되도록 배제하였으므로 누구나 술술 읽어가면서 오는 저자의 탁월한 해설 때문이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수행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수행의 한복판에서 갖는 무의식적인 착오들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서 지금 자리로부터 성큼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봉선사 90여 본말사찰 역사 정보 등 집대성

봉선사 본말사지

봉선사 편집위원회 엮음
조계종 출판사 펴냄 | 상하권 세트 15만원



1994년 직지사서 본말사지를 출간 후 21년 만의 처음으로 본말사 현황 보고서가 나왔다. 봉선사 주지 스님을 필두로 편집위원회 구성 이후 1년여 조사와 취

재를 통해 얻은 결실을 대한불교조계종 제 25교구 본말사 90여 사찰의 역사, 성보, 재산 현황을 모두 담아 집대성했다. 이 책은 이런 노력의 결실로 발간된 것이다.

원색의 전 2권으로 발간된 이 책은 총 900여 쪽에 걸쳐 봉선사와 산하 말사들의 연혁, 성보 문화재 현황, 재산 현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보의 사진과 각 사찰의 전경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번 본말사지 발간은 작년 봉선사 현 주지인 한암 정수 스님(간행위원장)을 필두로 봉선사 총무국장인 선우 스님(부위원장), 봉선사 연꽃유지위원장

을 지낸 지환 스님과 봉선사 교무국장 남림 스님(이상 편집위원), 능엄승가대학원 연구원과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석산 범등 스님(교정위원), 능엄승가대학원 학감인 취봉 정원 스님(편집위원장)으로 구성된 〈봉선사 본말사지〉 편집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시작했다. 이로써 25교구 본사인 봉선사는 88년 전인 1927년 안진호 스님의 〈봉선사 본말사지〉와 1977년 편찬된 월운 스님의 〈봉선사본말사약지〉 출간 이후 38년 만에 다시 〈봉선사 본말사지〉가 출간돼 25교구 소속 본말사의 역사와 현황을 담은 세 번째 출판물을 갖게 됐다.

‘본말사지’는 본사와 소속 말사의 역사, 성보, 재산, 가람 배치, 역대 주지 등을 총망라한 현황 보고서로 본말사의 과거와 현재를 파악할 수 있는 한편, 가람의 유지·발전과 성보 문화재를 보호하고 알리는 데 꼭 필요한 책이다.

편집위원회 간행위원장인 봉선사 주지 한암 정수 스님은 “〈봉선사본말사약지〉가 출간된 이후 38년이 흐른 지금 사암도 늘어나고, 폐사된 사찰도 생겨남에 따라 삼보장재와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이 책이 빨리 편찬돼야 했다”면서 본

말사지 편찬의 목적을 “삼보장재를 잘 지키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호해 불일(佛日)을 더욱 빛나게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927년 편찬된 〈봉선사본말사지〉는 24개 사암이 수록되었고, 1977년 편찬된 〈봉선사본말사약지〉의 경우 64개 사암과 1개 포교당의 현황이 실렸으나, 금

지난해 편찬위원회 발족하며 시작

정보 및 각사찰 전경 사진도 실어

전각과 성보현황 한눈에 조망 가능

1927년 편찬된 사지엔 24개 사암만

년 〈봉선사 본말사지〉에는 90여 개 사찰 현황이 실려 있어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봉선사 본말사지〉는 지금까지 연구돼 밝혀진 바와 함께 구비나 전적 등을 통해 전해내려 오는 사찰의 역사를 종합 정리해 소개하고, 무궁한 역사 속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각과 도량에 봉안된 성보 현황을

정리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에게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해를 돕기 위해 가람의 전경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보 사진도 덧붙이고 있어 가람 역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한편 봉선사 측은 밝혀지지 않았거나 추측에 머물고 있는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함께 앞으로의 연구 활동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정 보완 작업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수 스님은 “아직 본말사지를 편찬하지 않은 사찰이 많다”고 하면서 “전법교화와 수행의 도량이며, 중생들의 안심처가 되는 우리 도량을 지키고 잘 가꿔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타 사찰의 본말사지 출간을 독려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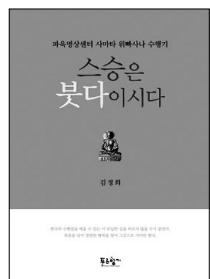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도 “이번 간행 불사는 불교의 장래를 원대하게 내다보는 역사 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선조들의 일이 담긴 문화유산이 소중한 자산으로 처처에 남겨져 좋은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축사에 가능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선정과 열반에 이르는 초기불교 수행법

스승은 붓다이다

김경희 지음 | 푸른향기 펴냄 | 1만 6천원



초기불교 경전 〈니까야〉가 우리말로 번역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 그 후 부처의 원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명상을 실천하는 불자와 일반인이 우리나라에서도 부쩍 늘었고, 동남아의 이념난 수행처를 찾아 나선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번엔 출간된 책은 정년퇴임 후 미얀마의 파옥명상센터를 오가며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고 기록한 김경희 씨의 6년간 수행 기록이다.

저자는 경북대 교육대학원서 국민윤리교육 석사를 취득하고 육군대학을 수료 후 전투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하다가 정년퇴임 했다. 이후 웰딩 강연과 호스피스 봉사 등을 하던 중, 세계적인 명상지도자 파옥 사야도를 만나 붓다의 수행법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수행으로 도와 과를 얻고 나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 생각하고 하던 일을 모두 접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세계적인 명상지도자 파옥 사야도를 만나게 된 인연과 그곳에서 수행하는 치열한 과정을 담백히 풀고 있다. 수 없이 좌절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행한 끝에 귀한 결실을 얻은 재가수행자의 정진 일기와 마음의 영원한 피안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의 길잡이 이 책은 파옥명상센터서 명상수행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한 재가수행자 김경희 씨의 맑고 눈물이 녹아 있는 수행 안내서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교학적인 논설이 아닌 **저자의 파옥명상센터 6년간 수행기록 초기불교 수행과정 정확한 이해 도와 교학적 논설 탈피해 실습위주 소개**

닌 사마타 수행과정과 위빠사나 수행과정 등, 전통적인 도제식 수행 전수의 과정을 체계적인 실습 위주로 소개함으로써 초기 불교의 수행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명상 수행을 직접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과 정진 과정에서 어려움

을 겪는 수행자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을 했다 모기떼가 날아다니는 파옥명상센터 꾸미의 열악한 환경에서 수행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저자는 제대로 먹지 못해 나날이 어려워갔고, 잇몸이 부어오르고 발가락에는 종기가 생겨 진물이 나왔다. 그렇게 육체의 고통에 시달리며 ‘사람은 누구나 업의 상속자’라고 말한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던 어느 날, 여섯 살짜리 소녀가 보시 한 비스킷 한쪽을 삼키다가 저자는 ‘나’라는 허상을 깨닫는다. 저자의 수행일기를 읽다 보면, 이내 자신 안에도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열정이 있음을 깨닫고 깊은 감동과 환희를 경험하기도 한다. 김주일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복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배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배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